韓國 植物分類學에 關한 몇가지 提言

高 庚 式¹

Some Proposals on Plant Taxonomy of Korea.

Koh, Kyoung Shik¹

Abstract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several problems that should be defined in the basic fields of Korean plant taxonomy. To prevent causing confusion in Korean name of plants, especially in the names of newly found naturalized plants, it is recommended that the first given vernacular name to a particular lower taxon be used and adopted as the standard name.

It is urgent to give standard Korean names to families and genera of Korean plants. This will provide for the publication of *Flora of Korea* in the near future. It is also required to have Cyto-genetical review of the endemic genera of Korean plants which have been studied on an external morphological basis.

Trochodendron aralioides is not foun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djacent islands, though many foreign publications say that this species is distributed in the Southern part of Korea. The distribution of *Myrica gale* var. *tomentosa* is the Northern part of Korea, but this requires confirmation.

諸 論

植物學의 諸研究分野나 方法論에 있어서 分類學만큼 많은 문제점과 特異性を 지닌 研究對象도 드물 것이다. 그것은 植物分類學의 시작이요 끝이라고도 할 수 있는 種에 대한 認識이 類緣研究分野의 發達에 따르는 새로운 概念들에 대한 多様な 解析때문에 이른바, “古典的인 種의 認識”만으로는 分類學이 近代의인 科學으로 存立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오랜 歷史와 背景을 지닌 植物分類學은 記載學이란 同意語로서도 通用될 듯이 主로 乾燥標本에 의한 外部形態의 記載文이나 年代別로 區分되는 文獻에만 依存하여 “自然的”이란 이름아래 植物群에 대해 여러가지도 試圖한 hierarchy는 그것을 구성하는 諸 taxa 까지도 包含하여 “人爲的”이 아닐 수 없는 모순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系統性を 고려치 않은 모순에서 脫皮하려는 試圖은 細胞學이나 새로운 遺傳學의 發達과 함께 今世紀初부터 더욱 活發하였음은 認知의 事實이다. 種에 대한 概念에 대한 새로운 認識은 여러 研究者

1. Present Address 30-18, Jangwi-dong, Seougbuk-ku, Seoul 131, Korea.

에 의해 多樣한 方法論에 의한 實驗植物分類學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植物學의 넓은 研究分野에서 얻어지는 거의 모든 情報를 集約하고 그 資料를 適用하여야만 비로서 그 進路가 열리기에 까지 이르렀다. 開拓者는 統合者의 처지가 되니, “植物分類學은 끝났다”에서 “植物分類學은 再出發이 不可避”하게 된 형편이다. 이러한 現況과 傾向性은 韓國에 있어서의 植物分類學研究에서도 例外일 수는 없는. 梨花大學校의 李永魯教授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試圖된 細胞分類學의 方法에 의한 研究는 많은 國內研究者들에 의해 活發하게 進行되고 있으며, 表皮나 花粉形態, 染色體나 核型에 의한 種의 比較檢討나 同定과 함께 local flora의 調査, 學名에 대한 出典의 整理 分布圖의 作成등도 並行하여 研究되고 있으나 아직도 未決의 狀態로 둔 채 소외되고 있는 식물분류학의 基礎分野에 걸친 當面問題가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筆者는 生覺하고 있다. 따라서 筆者는 한번은 밝히고 넘어가야할 共同關心事와 기타 몇가지 事項을 순서없이 적어 問題로서 提議한다.

問題點 과 提議

1. 한국식물명

學名에도 *nomen legitimum* 와 *Synonym* 있듯이, 한국식물명의 경우도 한 식물에 方言까지 포함, 여러개의 이름이 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事情이라 하겠다. 그러나 새로운 未記錄種이나 特히 歸化植物의 경우 研究者마다 새로운 이름을 設定할 必要는 없다. I.C.B.N.에 先取權의 規定이 있듯이 새로운 한국식물명의 경우도 제일 처음 報告書에서 指稱된 식물명은 답습사용하여야 할것이다. *Ambrosia artemisiaefolia* L.의 경우, 두드러기 쭉과 돼지풀을 거의 같은 빈도로 混用하고 있는데 文獻上으로 發表가 빠른 것을 정식 한국명으로 해야 마땅하고, 또 이것을 따르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Saussurea polylepis* Nakai는 朴萬奎先生은 우리나라의 식물명감(1949)에서 안학수씨는 한국식물명감(1965)에서 각각 섬취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창복 교수의 紅島의 陸生植物(1968)에서는 홍도서털취로 기재하고 있다. 아마 그 外部形態가 서덜취인 *Saussurea brachycephala* Franch.와 비슷하다는 것과 홍도에서 採集했다해서 홍도서털취로 新稱(1968)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Saussurea polylepis* Nakai는 홍도에만 限定分布하는 種도 아닌 이상 구태여 홍도서털취로 記載할 것 없이 既發表記載에 따라 섬취로 하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例는 한국식물에 관한 몇권의 著作이나 報告目錄을 比較하면 허다하게 찾아볼 수 있는 是正해야할 문제이다.

2. 한국식물도감과 한국식물지

한국식물에 관한 도감으로는 多年間 學界는 勿論, 一般에서도 故鄭台鉉博士의 韓國植物圖鑑, 木本編과 草本編이 널리 使用되었다. 乾燥標本으로 그린 圖版이나 印刷의 不明, 記載文에도 많은 問題點이 있어, 牧野新日本 植物圖鑑같이 後學에 의한 補筆 및 再編의 必要性은 切實했지만, 元來 植物圖鑑이란 學術의이면서 大衆性도 고려해야 하는 特殊性 때문에, 또한 著作에 所要되는 期日이나 經濟性을 고려할 때 다른 著作이나 出版物과는 比較할 수 없는 것은 周和의 事實이다. 이러한 오랫동안 問題點을 한국의 식물도감에 관한 限, 서울대학교의 李昌福博士는 그의 畢生의 力作 大韓植物圖鑑(1979, 鄉文社)으로 훌륭하게 解決해 주었다. 문제는 植物誌에 있다. 故朴萬奎博士의 韓的雙子藥植物誌(1979 正音社)와 李永魯博士의 *Manual of Korean Grasses*(1966 梨大出版部)는 각각 制限된 한국식물에 관한 植物誌이기는 하지만 前掲書의 경우는 同博士의 韓國羊齒植物誌보다는 더 많은 補完이 必要한 것 같고 學名에 대해서도 再考할 점이 많은 것 같다. 故大井次三郎博士의 日本植物誌에 버금가는 一定한 統一된 基準에 의한 體系的인 韓國植物誌의 出現은 매우 要望스러우나, 最近의 研究者들의 實態를 鳥瞰하건데 아직은 요원한 것같이 여겨진다. 韓國植物分類學會의 主管아래

關係當局의 協助와 支援을 얻어 toxon 별 研究者가 一定한 基準에 따라 分擔하여 發刊하는 計劃도 생각해 볼만한 일이라 하겠다. 慶北大學校의 吳修榮博士가 科 또는 屬別로 發散的으로 發表하고 있는 研究는 그러한 Project 를 위한 좋은 資料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3. 歸化植物研究

急激한 國家經濟發展과 交通手段 및 道路의 發達로 空港, 港口, 鐵道沿邊이나 高速道路 주변 같은 教科書的인 歸化植物의 侵入路 以外에서도 이른바 낯서른 새로운 歸化植物들을 많이 보게된다.

벼과, 배추과,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은 數的으로 種類도 더욱 많은 것 같다. 歸化植物의 同定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文獻도 制約받고 있다. 侵入過程, 定着, 土着固有植物과의 競爭, 成分등의 分類, 生態學的인 綜合研究는 自然保護의 側面에서도 매우 時急하고 바람직스러운 時宜性을 지닌 Project 가 될 것이다.

4. 屬名의 規約

한국식물분류학회는 1978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식물명이 教科書에 따라 다르게 적혀 있거나 틀린것을 是次하기 위해 李昌福, 李永魯兩博士 主管아래 筆者를 포함한 몇명이 自然保存協會 會議室에서 여러 차례의 모임을 갖고 統一案을 作成 學會이름으로 文敎部에 건의한바 있다. 이와 類似한 일을 植物誌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한국식물의 屬名에 대해 學術的인 檢討가 이룩해야 할것으로 여겨진다. 例를들면 Genus *Rhodolendrou* 은 만병초屬, 진달래屬, 철쭉屬등 그 어느 것도 무방하나 *Rhododendron* 은 진달래屬으로 規約하든가, 또 Genus *Disporium* 의 경우 애기나리屬이나 윤판나물屬중 어느 하나를 한국식물의 屬名으로 確定하는 것도 매우 要望스럽다. Genus *Bidens* 도 도깨비바늘屬 또는 가막살屬등으로 現在로서는 어느 것이나 *Bidens* 의 우리말 屬名으로 使用될수 있음은 例外일수 없다. *Quercus*, *Ilex*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例는 일부 과명에도 該當된다. Gramineae (Poaceae)와 Umbelliferae (Apiaceae)를 각각 화본과, 산형과 또는 벼과 미나리과중 어느 쪽을 公式名稱으로 할 것인가는 日本의 경우와 같이 植物分類學會에서 최소한 科名과 屬名까지는 決議해서 規約해야할 문제이다. 筆者는 現在에 한국식물분류학회에 提議할 우리나라 식물의 과명 및 屬名에 대한 草案을 作成中에 있다.

5. *Trochodendrou aralioides* Sieb et Zucc.의 分布

Trochodendrou aralioides 는 被子植物의 起源과 分布를 論하는 研究에서 文獻마다 넓디 引用되는 現存 原始被子植物에 屬하는 種인데 濟州島와 南海諸島를 包含하여 韓半島에는 分布하지 않는 種인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海外學者들의 著作과 文獻에는 이것이 南韓에 分布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筆者가 *Trochodendrou aralioides* 가 南韓에 分布하는 것으로 記錄된 것으로 본 文獻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 (가) Takhtajan. A, Flowering plants; Origin and Dispersal (Enged) (1967) Oliver & Boyed, Fdinburgh.
- (나) 大井次三郎, 日本植物誌 (1975) 至文堂, 東京
- (다) 岡本省吾, 原色日本樹木圖鑑 (1978) 保育社, 大阪
- (라) 北村四郎, 村田源, 原色日本樹物圖鑑 (1976) 保育社, 大阪
- (마) J. Ohwi, Flora of Japan (1961) Smithsonian Inst. Washington DC.
- (바) 田村道夫, 被子植物の系統 (1974) 三省堂, 東京
- (사) 堀田 滿, 種の分布と分化 (1974) 三省堂, 東京

以上에서 보는 착오는 아마도 前掲書中에서 (나)와 (마)에 起因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6. 北韓植物의 研究

國土의 分斷과 限定된 文獻으로 北韓植物의 研究는 制約 받을 수 없음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 해도 關心은 가져야 할 문제이다. 그런 點에서 DMZ의 植物調査나 日本이나 歐美諸國의 大學이나 研究所 所藏의 標本이나 植物園의 資料는 北韓植物의 研究에 國內학자에게는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李昌福博士의 大韓植物圖鑑은 外國에 있는 北韓植物의 資料에 근거하여 많은 北韓產 種을 다루었다는 點에서 特記할만 하다. 李愚喆, 傳良宰兩博士의 韓半島管東植物의 分布에 關한 研究는 制限된 文獻을 잘 活用하여 北韓植物의 分布에 대해 比較的 細詳하게 論하였는데 앞으로 韓半島의 植物의 分布나 植生을 研究하는데 있어 筆者의 北韓植物의 屬과 함께 많은 參考가 될 새로운 試圖인 것 같다.

7. 韓國產 소귀나무科는 몇種인가

소귀나무科에는 1屬 1種 소귀나무 *Myrica rubra* Sieb et Zucc 가 우리나라에 分布, 濟州道에 自生하고 있는 것이 定說로서 中井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여러 報告書나 著作에 發表되어 있는데, 域方要素인 *Myrica Gale* var. *tomentosa* C. DC 가 北韓에 自生하는 것으로 原色日本樹木圖鑑 (p.36)과 北村, 村田의 原色日本樹木圖鑑 木本編(Ⅱ) (p.350)에 發表되어 있는데 매우 興味롭다. 正確한 分布事項과 出典까지 確認해야 할 것이 要望스럽다.

8. 韓國特產屬에 대한 再檢討

故 中井猛之進博士는 朝鮮植物誌梗概(1952)에서 *Abeliophllum*, *Coreanomecon*, *Dipololabellum*, *Distaenia* *Echinosophora*, *Hanabusaya*, *Megaleranthis*, *Patis*, *Pentactina*, 및 *Terauchia* 의 11屬을 韓國에 分布하는 植物의 特產屬으로 列舉하였으나 새로운 分類學的 諸方法論에 의한 再檢討가 不可避하다. *Coreanomecon hylomecoides* Nakai 에 대해 李永魯博士와 李昌福博士는 各各 다르게 再檢討한바 屬으로서 妥當성은 否認되어 *Hylomecon hylomecoides* (Nakai) Lee 로 새로 組合되어 發表한바 있다. 이러한 경우는 中井, 大井, 北川등이 設定한 이른바 韓國 特產의 屬과 種 및 變種등을 包含한 여러 Taxa 에 대해서도 可能的 限 共通의 으로 再檢을 해 볼만한 問題라고 생각된다.

結 論

한국식물분류학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음을否認할 수 없는事實이다. 標本의 外部形態에 止중한 觀察과 그 記載가 主宗이 었던 過去의 식물분류학은 많은 實驗的인 方法과 特히 遺傳學이나 細胞學에서의 情報는 “만들어진 種”이라고 생각되는 오랜 傳統的인 낡은 知見을 바로 잡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方法論에 입각한 한국식물에 대한 많은 研究者들의 活潑한 움직임은 자칫하면 아직도 未決의 章으로 남아 있는 일부 기초분야에 關係되는 資料의 整理나 再檢討에 있어 소홀해 질수도 있음을 감안, 몇 가지 事項을 列舉하여 問題로 提議하였다.

참 고 문 헌

- 鄭台鉉, 1956, 韓國植物圖鑑, 上下卷, 新志社, 서울
北村四郎, 岡本省吾, 1978, 原色日本樹木圖鑑, 保育社, 大阪

- 北村四郎, 村田 源, 原色日本植物圖鑑 木本編一, 保育社, 大阪
- 高庚式, 1978. 北韓植物의 屬, 植物分類誌 8:1.2, 53-58.
- 李昌福, 1979. 大韓植物圖鑑, 鄉文社, 서울
- 李愚喆, 任良宰, 1978. 韓半島植物의 分布에 關한 研究, 植物分類誌 3: Supp.
- 長田武正, 1972. 原色日本歸化植物圖鑑, 保育社, 大阪
- 大井次三郎, 1955. 日本植物誌, 至文堂, 東京
- 吳修榮, 1978. 한국산 쇠뜨기屬, 경북대 문리학총 5: 139-154
- _____, 1979. 한국산 부처손屬, 경북대 문리학총 7: 181-194
- 朴萬奎, 1961. 한국양치식물지, 교학도서, 서울
- Lee, Y.N., 1957. Theses of Plant Classification, Seoul.
- _____, 1966. Manual of the Konean Grasses. E.W.U. Press.
- Takhtajan, A. 1969. Flowering plants: Origin and Dispersal (Eng Ed) Oliver & Boyd. Edinburgh.
- 文化公報部, 1968. 漢拏山 및 紅島, 서울